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서 루도비코

볼리의 루도비코 (1840-1866)



‘볼리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서 루도비코 신부의 우리말 이름은 서몰례(徐沒禮)이다. 그는 1840년 프랑스 보르도 교구에서 태어나 1864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백 유스토 신부, 김 헨리코 신부, 민 루카 신부와 함께 충청도 내포 지역으로 입국하였다. 고해성사를 줄 만큼 한국말을 배운 뒤엔 공주 지역의 전교를 맡았으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겨를도 없이 박해를 겪게 되었다. 서 루도비코 신부는 장 시메온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광주 근처의 교우 집에 숨어 있었는데, 결국 1866년 2월 27일에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된 그는 모진 고문을 잘 참아 내었고, 여러 질문에는 조선말이 서투르다는 핑계를 대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마침내 그해 3월 7일, 동료 신부들과 함께 새남터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성화_보디아니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리 주보 ▶



임당송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시편 19(18),8.10.12-13.14(◎ 9ㄱㄴ)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야고 5,1-6

복음 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령강림 기념 경당

예루살렘의 시온산에는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경당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꽃 모양의 혀처럼 내려와, 바벨탑 사건 이후 다른 언어로 갈라진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된 과정을, 그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 신비를 보여주는 성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강림 때,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설교를 합니다(사도 2,1-36).

베드로가 언급한 예언은 요엘서 3장입니다. 과거에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던 성령이 이제는 ‘백성 전체’에게 내려 남녀노소, 자유인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이가 예언자처럼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갈라 3,27-28). 옛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영이 내려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은 이사 61,1과 예제 11,5 등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엘 3장은 특별히 민수 11,1-12,8을 염두에 둔 예언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지휘하던 모세가 소명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도 나누어주셨다는 대목입니다(민수 11,16-17,25). 그리고 주님의 영을 아무나 받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자 주변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11,26-28). 하지만 모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온 백성이 예언자처럼 되기를, 주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

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11,29). 바로 이 바람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예고가 요엘서에 전달된 셈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예언은 사도 시대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령이 백성 모두에게 내려 예언자처럼 되리라.’는 예고는 예레 31,33-34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시어 그들이 더 이상 주님 말씀에 대해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요엘 3장은 나뉘어진 사회 계층의 경계를 허무는 급진성도 보입니다. 노인과 젊은이, 아들과 딸, 자유인과 종이 ‘똑같이’ 성령을 받으리라고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세상 만민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게 할 기폭제 같은 구실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언이 사도 시대에 실현되었음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만민 가운데 받아들려 뽑으신(탈출 4,22)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령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요엘 3,5)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코린 3,16 등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뜻이지요. 요엘 3,1-2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인용되었고(사도 1,8),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내리신 결과 모두 힘을 받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6장 세계 안의 대화와 우애 ① -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복음화라는 사명(使命, mission)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순례의 여정에서 내적으로 상호결합되어 있는 종교적 사명(하느님 사랑)과 사회적 사명(이웃 사랑)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교회는 그 ‘종교적 사명’을 신앙고백과 전례(신비 거행)와 기도 생활로 드러내며, ‘사회적 사명’을 사회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가톨릭 사회 가르침(Catholic Social Teaching)을 통해 온전한(integral) 인간화와 사회화와 생태적 전환의 삶으로 드러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 수행의 방법론(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기, 성찰하고 판단하기, 행동하기)과, 사회 여러 분야(가정, 문화, 경제 사회생활, 정치, 국제 공동체와 평화 건설)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의 제3장에서는 현세 사물의 정당한 자율성을, 제4장에서는 교회와 세계의 상호 관계와 상호 도움을 강조합니다. 한편, 제2부에서는 문화 발전의 촉진(제2장)을 경제 사회 생활(제3장)과 정치 공동체 생활(제4장)보다 앞에 배치하고, 맺음말에서는 모든 사람의 대화를 호소합니다. 이로써 교회 생활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인간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제1부 제1장)과 보편적 공동선(제2장)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현세 사물(現世事物)은 편의상 문화, 경제, 정치, 과학 및 과학기술의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① 각각의 영역마다 고유의 질서와 본령이 있고, ② 그러면서도 모든 영역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며, ③ 각 영역에서의 인간 활동은 따로 또 같이 ‘모든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공동선’을 지향하고, ④ 인간의 모든 활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궁극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현세 사물이나 신앙의 실재는 다 똑같은 하느님에게서 그 기원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기쁨과 희망」 3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양성된 첫 교황이라 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사회적 사명(평화와 세계 공동체 건설)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길에 서있는 선의의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회칙은 제1장에서 오늘날 폐쇄된 세계의 상황을 진단하고, 제3장에서 그 대조(對照) 세계인 열린 세계를 호소합니다. 제2장과 제4장에서는 열린 세계를 위해 지녀야 할 정신과 자세를 제안하고, 제5장에서는 정치 활동의 실질적 불가결함을 밝히며, 제6장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우애의 문화 촉진을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신만의 은신처를 구하려는 ‘이기적 무관심의 길’과 ‘파괴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길’ 그리고 언제나 가능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199항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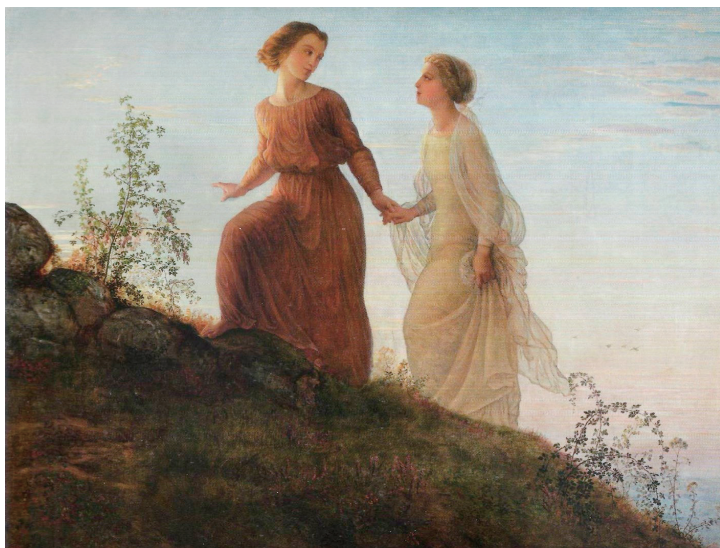
산 위에서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루이 장모(Louis Janmot, 1814-1892)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깊은 신심이 드러나는 고전주의 화풍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계 전반에서 그의 작품을 주목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19세기 중후반은 서양미술사의 대격변기로 낭만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엄격한 틀을 깨

는 다채로운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20세기를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종교적 주제는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로 간주 되었고, 그 대신 세속적인 미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루이 장모의 진가가 드러나는 데 10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1850년부터 1854년까지 총 18점의 그림과 시로 완성된 그의 역작 《영혼의 시》(Le Poème de l'âme) 중 14번째 작품을 소개합니다. 《영혼의 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신비로운 사랑의 이야기로서, 한 영혼의 지상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개는 이렇습니다:

한 천사가 하느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작은 영혼을 지상의 어머니 품에 안겨줍니다(〈천사와 어머니〉 n.3). 그 영혼은 하루하루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신비를 발견하며 지상의 삶을 향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의 손길, 험난한 고통의 순간과도 마주하지만, 결국 온갖 어둠과 유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요. 매 순간 영혼과 함께하는 천사는 조용히 그의 걸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길로 인도합니다. 녹록지 않은 지상의 삶에서 여리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영혼은 ‘십자가’의 소명을 짊어진 자로서 곳곳하



〈산 위에서〉(Sur la montagne), 루이 장모, 《영혼의 시》중 열네 번째 작품, 캔버스에 유채, 113.1cm×144.3cm, 리옹 미술관

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여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깨끗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하느님의 사랑 받는 딸로 거듭난 순백의 드레스 차림의 소녀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은 은은한 인디안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천사의 손을 잡은 채, 그가 이끄는 길로 따라 올라갑니다. 영혼의 안내자이자 친구인 수호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안고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녁노을이 질 무렵인지, 새벽의 여명이 트는 순간인지 은은하고 따스한 빛에 황홀해집니다. 루이 장모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평야로부터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견노라면, 양 떼들이 발자국을 남긴 비탈길이 있지. 나의 친구여, 나와 동행하여 산 위에 올라 새로운 수평선 너머의 세상을 함께 바라보지 않으렵?”

루이 장모가 그려낸 아름다운 《영혼의 시》중에서 유독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여기 “새로운 수평선 너머의 세상”, 그 신비롭고 다정한 여정에 당신도 초대합니다. ☺



교구 소식

10월 뽐나팔 미사 - 정의평화위원회 월례미사

10월에 기억해야 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시 10/2(수) 19:30

장소 의정부 사적지 성당

문의 010-5104-1784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0/4(금) 15시

장소 주교좌성당

고3 및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6(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성경의 세계

일시 10/16~11/20, 매주(수) 14시~16시 [총6회]

강사 주원준 박사, 송혜경 박사, 김선영 박사

회비 1인 6만원

장소 신앙교육원 (대면)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택 1)

신청 ▶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앙교육부

생태영성학교 - 기본과정 2기

일시 10/17~11/28, 매주(목) 11시

주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이해

접수 10/11(금)까지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의실

준비물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회비 5만원

제33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10/18(금) 19시 ~ 20(주일) 16시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2024년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10/26(토) 14시~17시

주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와 생태적 회개

접수 10/18(금)까지

※ 그 외 기타 사항은 공문 또는 교구 홈페이지 참조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시 신흥로 261)

강사 김승연 신부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의 031-850-1472 사회사목국

의정부교구 144차 ME 주말

날짜 11/1(금)~3(주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장소 ME 만남의집

문의 010-9504-0419 ME주말분과 대표

[담화]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민족화해분과 '평화순례' 및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일시: 10/12(토) 10시~13:30

장소: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옥녀봉 그리팅맨)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장·분과위원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첫토요 성모신심 피정: 10/5(토)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11/13(수) [매월 13일]

매주(목) 기도 피정: 이한택 요셉 주교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첫토요 신심 미사

일시: 10/5(토) 09:20 ~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10/4(금) 10시~15:30

[매월 첫 금요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다네이영성수련: 10/25(금)~27(주일)

고3수험생 부모님피정: 11/14(목) 10시~15시

단식피정: 11/25(월)~29(금)

대침목피정: 12/11(수)~14(토)

노베나신청: 11/2(토)~10(주일) 9일 동안 미사와

위령기도를 봉헌해드립니다.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가정선교회 10월 피정 및 미사

성가정 영성 피정: 10/2(수) 맹진학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0/5(토) 홍성남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0/19(토) 윤민재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팀, 신상옥 가족 팀

시간: 12:30~17시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10/18(금)~20(주일) [회비 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인천)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렉시오 디비나와 첫토요 신심미사

일시: 10/5(토) 14시~17시 (무요)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

주제: 렉시오 디비나와 첫토요 신심미사

강사: 이영근 아오스딩 수사

문의: 010-5230-2986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기도 피정

렉시오 디비나 (4박5일): 10/23(수) 15시 ~ 27(주일) 13시

예수기도 (3박4일): 10/29(화) 15시 ~ 11/1(금) 13시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

주제: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 기도

강사: 이영근 아오스딩 수사

문의: 010-5230-2986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10/4(금) 15시 성시간, 16시 미사

18:30 성시간, 19:30 미사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16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제1지구 하루 피정

일시: 10/9(수) 09:30~17시 / 장소: 호평동 성당

강사: 오전-이영숙 수녀 (마텔암 재단 이사)

오후-김대영 신부 (전주교구 수류성당)

회비: 5천원(점심제공), 문의: 010-9770-0146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2차: 11/8(금) 15시 ~ 9일(토) 13시, 공지영 작가

3차: 11/15(금) 15시 ~ 16일(토) 13시, 김탁환 작가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9만원 (접수 후 입금)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성지순례&성베네딕왜관수도원 탐방

11/2(토)~4(월) 대구17

12/7(토)~10(화) 수도원~부산8~마산6

출발: 서울 명동 / 문의: 010-3807-1784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피정

일시: 9/30(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양창우 요셉 신부 (성골롬반수도회)

문의: 010-8917-0090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10/11(금)~13(일)

성경완독: 11/1(금)~9(토), 12/6(금)~1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영적치유란 무엇인가?

강사: 김영철 신부(전국 및 교구 담당사제, 4지구장)

문의: 010-2127-0032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 - 내·외적, 영적치유

일시: 매주(목) 10:30~17:30

장소: 지혜의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손광배 신부

이상기, 김완식, 고영민,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교육 · 모집 ▶▶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3차 모집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대학 수시지원 및 수능성적 상관없이 지원 가능
접수: 10/2(수)까지

전형: 10/5(토)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문의: 02-705-8678, www.soganggame.ac.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접수: 9/30(월)~10/10(목), 전형일: 10/19(토)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가르멜재속회	매월 넷째 주일	가르멜 재속회관	010-7673-5013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7(월)부터 10주(월~토)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10/2(수)까지

문의: 054-851-3021~2, ipsi.csj.ac.kr

제43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가족캠프 성인 및 대학 어학연수

문의: 053-593-1273 국제교류팀

※ 화상영어 수업 접수 가능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 음악가
자격증 수여

접수: 10/14(월)~25(금)

전형: 11/15(금) 최양업홀(충정로역,서울역하차)

문의: 02-740-9704, songsin.catholic.ac.kr/music

**안내 · 기타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20(금), 1/17(금) 이탈리아 일주 (히년 전대사)

1/7(화),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금),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수), 2/11(화), 3/11(화) 포르투갈(파티마) 일주 (9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8(월)~21(금) 일본 (홍성남 신부 지도, 145만원)

11/22(금)~25(월) 홍콩, 마카오 (145만원)

12/2(월)~12(목) 동부유럽 4개국 (385만원)

12/9(월)~20(금)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50만원)

문의: 02-2281-9070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날짜: 2025년 4/24(목)~5/5(월)

장소: 성모발현지 / 비용: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45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2025년 3/30(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모임****한마음어게인Talk 특 어게인 토크콘서트**

일시: 10/26(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광장

인원: 200명 (선착순)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일정: 10시_강의 <성모님의 생애로 본 오늘날 신앙인의 삶>

12시_점심 식사

13시_생활 성가 부르며 느끼는 가을의 정취

15시_공동체 파견 미사

회비: 4만원 (점심 식사 포함)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접수는 단체 및 개인 신청 모두 가능 (30명 이상은 1인 3만원)

채용**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직원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장소: 오픈예정인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업무: 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소속 단체 지원 업무, 각종 행사 지원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 채용 시까지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오늘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1914년 제정된 이날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지지와 관심을 드러냅니다. 한국 천주교회 역시 전 세계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9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정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 종교 박해와 기후 위기 등 여러 이유로 고국을 떠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기억합니다.

2023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제였던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자유>가 이주민들이 고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에 주목했다면, 올해의 주제인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는 '이주하는 이들의 여정에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동행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에덴동산을 떠나야 했던 아담부터 새로운 소명을 위해 고향과 친지를 떠난 아브라함,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하느님께서 보호자로 동행해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성경 속 하느님의 백성이 체험한 역사는 오늘날 이주민의 삶과 맞닿아있으며, 지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의 순례자적 차원'을 묵상하게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3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한국전쟁 때의 피난민 숫자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UN 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이주민을 3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중 1억 2천만 명이 난민인데, 전 세계 80명 중 한 사람이 난민인 셈입니다. 폭력과 박해, 기후 위기와 빈곤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에게 더 비참한 사실은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권 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에 유입된 예멘 난민들을 향한 냉담한 여론에서도 볼 수 있듯, 문화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선주민과의 갈등,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들을 '세금을 चु내는 존재'로, 특정 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탈출 23,9) 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종의 신분, 이방인으로 겪었던 서러움과 아픔을 기억하며 새롭게 만나는 이방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국인 역시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피난민 처지였음을 기억합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파견 노동자, 실향민, 전쟁고아, 피란민 등 우리 세대에 익숙하게 남아있는 이 말들은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타향에서 마주했던 추위와 배고픔, 온갖 차별과 무시당함은,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김향수 파스카시오 신부 파주 EXODUS 위원장